공모전·지원사업 주제 고르기 — AI 따라 하기 키트

대화형 AI와 웹 검색만 있으면 됩니다. 코딩은 필요 없습니다. 아래 요청문의 ○○만 바꿔서 쓰세요.

1 공고 이해하기

> 아래 공고문과 배점표를 읽고 평가 항목마다 심사위원이 무엇을 보는지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표로 정리해 줘. 마감일은 공식 페이지와 다른 공고를 비교해서 확인해 줘.

공식 페이지가 늦게 갱신되는 경우가 있어 마감일은 꼭 두 곳 이상에서 확인합니다.

2 기존 출품작 세기

> ○○ 게시판의 공개 출품작 목록(제목·한 줄 소개·분야·날짜)을 모아 줘. 요청 사이에 간격을 두어 서버에 부담을 주지 말고 작성자 이름은 저장하지 마. 분야별·시기별 건수와, 내가 생각한 주제 키워드(○○, ○○)마다 몇 건이 있는지 세 줘.

이미 많은 주제와 아무도 안 한 주제가 숫자로 보입니다. 남의 아이디어는 겹치지 않기 위해서만 참고합니다.

3 가상 심사위원 5명 만들기

> 배점표를 기준으로 관점이 서로 다른 심사위원 5명을 만들어 줘: AI 기술, AI 윤리·개인정보, 교육·확산, 지역·공공, 서비스 기획·임팩트.
> 각자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무엇에서 감점하는지, 얼마나 엄격한지 정해 줘.
> 그다음 내 후보 주제마다 심사위원별로 항목별 점수와 감점 사유 한 줄을 표로 써 줘. 후하게 주지 말고 기존 출품작과 겹치는 정도를 차별성 점수에 반영해 줘. 마지막에 합계와 평균을 다시 계산해서 맞는지 확인해 줘.

한 명에게만 물으면 칭찬만 돌아오기 쉽습니다. 관점이 다른 여러 명과 감점 사유가 핵심입니다.

4 다시 설계하고 다시 채점하기

> 심사위원들이 공통으로 깎은 이유 3가지를 뽑고 그 이유를 피하도록 후보를 다시 설계해 줘. 기준은 바꾸지 말고 같은 심사위원으로 다시 채점해 줘.

점수를 올리려고 기준을 바꾸면 의미가 없습니다. 같은 기준에서 설계를 바꿉니다.

5 실행 가능성과 진실성으로 거르기

> 마감 전까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○시간이고 조건은 ○○야. 실제로 해낼 수 있는 후보만 남겨 줘.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써야 하는 후보는 빼 줘.

점수가 높아도 실제로 할 수 없는 주제는 고르지 않습니다.

꼭 지킬 것

- 모의 점수는 후보끼리 비교하는 용도입니다. 실제 심사 결과가 아닙니다.
- 수치와 마감일은 원문으로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고 적습니다.
- 공개 게시판은 천천히 모으고 개인정보(작성자 이름 등)는 저장하지 않습니다.
- 실제로 한 일만 씁니다.